

과 연 노 보

8

제67호 2007년 08월0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부
<http://kist.nodong.net>

136-79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958-6351~3 Fax 958-6354 / 발행인 : 박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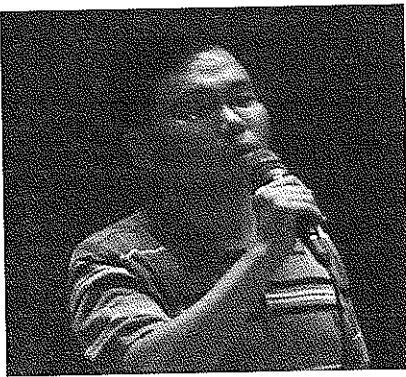


7월13일 제18주년 창립 기념식 및 임원 취임식

기념사	창립기념식 기념사/제7대집행부 소개	2, 3
노설	이랜드비정규직대량해고의 핵심은 외주화/중량천물고기(시)	4, 5
정보통	‘우리 마음을 열어봐요’	6
풀어봅시다	퍼즐/편집후기	7
광고	조합원동정/활동일지/조합원 모집공고	8

창립기념식 기념사

글쓴이 _ 박병수 지부장



오늘은 KIST 지부 창립 18주년입니다. 창립기념식 및 7대 임원 취임식에 참여해주신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조한육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공연구노조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법에서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자주적 단결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적인 단결권입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KIST 노동조합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모이신 선배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 파업을 감행하였고 당당하게 승리하여 지금의 KIST 노동조합의 깃발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런데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KIST 노동조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동조합 출범초기 가졌던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적 단결권이 훼손되지 않고 18년의 자랑스러운 노동조합 역사 속에 남겨져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있게 “예” 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지부장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다워지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수가 부족해도 똘똘 뭉치면 어떤 탄압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기평 조합원 22명의 투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선배 지부장들의 뜻을 이어 KIST 지부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으로 설 수 있도록 2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을 배가하고, 전직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연구노조 KIST 지부가 창립 18주년에 걸맞게 청년처럼 당당하고 뚝뚝 안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하고 밖으로 전체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길에 항상 여기계신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 7 대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



- 지 부 장 -

성 명 : 박 병 수

(전) 제6대 사무국장



- 사 무 국 장 -

성 명 : 박 기 용

(전) 제6대 조사통계부장



- 부 지 부 장 -

성 명 : 정 찬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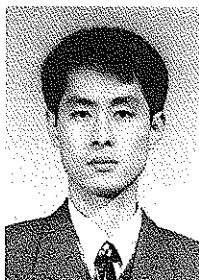
(전) 제3,6대 부지부장



- 부 지 부 장 -

성 명 : 김 남 숙

(전) 제6대 부지부장



- 문화교육부장 -

성 명 : 장 성 철

소 속 : 연료전지연구단

(전) 제6대 문화교육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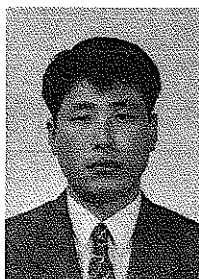


- 여 성 부 장 -

성 명 : 이 현 경

소 속 : 연구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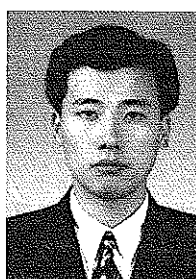
(전) 제6대 여성부장



- 조직홍보부장 -

성 명 : 최 승 득

소 속 : 시 설 팀



- 조사통계부장 -

성 명 : 최 원 혁

소 속 : 협력담당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핵심은 외주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간제법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랜드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계약해지를 필두로 은행권, 호텔, 법원, 병원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 중소기업이 수용 가능한 비정규직 법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라고 정부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에 대해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외주화를 위한 계약해지

이랜드 그룹은 잔혹한 노무관리, 노동탄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도 노동법 위반사태가 수십건 적발되었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체불, 임신여성에게 연장근로 강요, 근로계약서에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계약까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까루프를 인수한 뒤에 1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최소 305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470명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의 핵심은 외주화입니다. 이미 홈에버의 신규점포는 일부 정규직을 제외하고 매장 전체 인원을 외주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랜드 자본은 기를 쓰고 외주화를 진행 할까요? 기간제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회피 수단이 바로 외주화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매장 전체를 외주화 할 경우 이랜드 자본은 아무런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습니다. 임금과 단체교섭의 당사자도 아니고 4대보험을 지급하는 사용자도 아닙니다. 즉 현행법상 외주업체의 노동자는 이랜드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주화를 진행할 경우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가 이랜드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주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그 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현대하이스코, 하이닉스 매그너칩이 모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원청회사인 현대하이스코와 하이닉스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발뺌하고 하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해고자가 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외주화란 곧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청의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노동3권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는 간접고용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간접고용이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고용과 달리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와 고용한 업체가 서로 다른 고용형태로 파견과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을 말합니다. 즉 이랜드 매장에서 일하지만 채용한 업체는 이랜드가 아닌 외주업체인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고용이 확산되면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용역업체간의 경쟁이 과열되면 실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랜드 자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가 55, 간접고용 노동자가 42라고 합니다. 나빠지는 것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노동3권도 철저히 무력화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사용자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용역업체 계약을 해지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랜드 상품 불매운동부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제외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수천, 아니 수십만의 생존권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살아가는 부모님이고 누이고 동생들입니다. 월급 100만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랜드 상품 불매운동에 참여합시다. 우리 집 근처에 있고 물건 값이 싸더라도 노동자의 밥그릇을 건어차는 악질자본의 사업장에는 가지 맙시다.

중랑천 물고기

김 양 기

-이웃집 아저씨는 왜
중랑천 물고기를 찾고 있을까-

전망 좋은 아파트
17층 창문을 열고
이웃집 아저씨는 오늘도
중랑천 물고기를 찾고 있다.

물안개 걷히기 전부터
햇빛 반사된 오후에도
물고기 닮은 아가씨
비늘허리에 눈을 멈추지 못하고

가로등 불빛들 일제히
물위에 내려와 재잘거리다
공룡동 아내의 뒷모습으로
도시의 졸음을 삼킬 때 까지

상그러운 슬픔 묻어둔 중랑천
모진 인연 상심의 한 가운데
그해 7월의 질긴 장마 불러모아
밤새 황토入물은 토해보아도

끝내, 중랑천 물고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수년 전 길 떠난 아이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열어봐요."

편집부

우리들은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KIST라는 울타리에서도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 과기원지부”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서운할때도 있고 미움을 가질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만 열어본다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깐요.

노보 “정보통”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 이야기, 후배들이 KIST에 근무해 보니 이렇더라, 아이들 육아는 내가 한수 가르쳐주마...등등 내용은 자유입니다.

보내주신 분에게는 노조에서 후하게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메일 : jhc @ kist.re.kr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주어진 운명과 환경에서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 김홍식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에서

※ 알 림 ※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1대 임원선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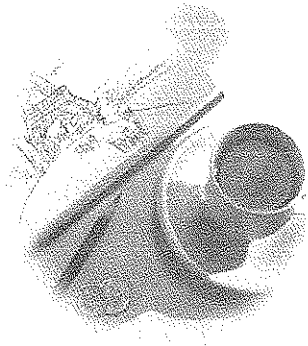
1. 선거일시 : 2007년 8월 13일(월) ~ 8월 14일(화) 15:00까지

부재자투표(8월 7일(화) ~ 8월 10일(금) 17:00까지)

2. 선거장소 : 지부사무실

* 8월30일~31일

간부수련회 갑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8월24일 까지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2								
					6			8	
	3		4						
			5						
							9	10	
							11	12	
18		15	16		14				
					13				
17									

가로열쇠

1. 최근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홈에버, 뉴코아 등) 3.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5. 여러 가지의 잘잘못. 6. 보험 계약의 모집과 권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9. 사람이 출입할 때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 11. 구약성서에도 기록이 있는 오래 전부터 사용한 올리브나무의 열매에서 채유한 기름. 13. 달리기 하는 운동기구 15.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로 인류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 17. 날카로운 침 모양의 털이 촘촘히 있는 동물.

세로열쇠

2.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특이성이 있는 것. (요즘 그 주변에서 두드러지는 아파트를 일컬어 하는 말) 4. 아시아축구연맹 AFC 이 4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지역 국가 대항전. 6.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 8.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계몽을 힘쓰는 운동. 10. 앞의 세대에게 물려 받은 가치 있는 문화적 재산. 12. 영기성을 만나면 푸른색, 산성을 만나면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 14. 연극, 영화의 장기 흥행 16. 대상의 걸 모양을 대강 그리는 것. 18.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겪는 고통.

편집후기

♥탈레반(Taleban, “학생”)은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이슬람 수니파에서도 근본주의 성격을 띤 학생들이 결성한 무장 정치 세력이다.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23명을 납치 감금하고 굶기야 살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그들이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한국에도 그 탈레반을 따라 하는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등 거대한 조직이 있다. 애사심을 가지고 지켜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힘없는 노동자들 자기의 생존권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 좁은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비정규직도 사람이라고 인간답게 살고자 염원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을 떼거지로 투입하여 닭장차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8월 10일 (음6/28) 전재학 조합원
- 8월 11일 이종일 조합원
- 8월 17일 (음7/05) 김정순 조합원
- 8월 22일 주경숙 조합원
- 8월 23일 (음7/11) 서선희 조합원
- 8월 23일 (음7/11) 임은숙 조합원
- 8월 24일 (음7/12) 박용배 조합원
- 8월 27일 (음7/15) 우주만 조합원
- 8월 27일 이경화 조합원
- 8월 28일 김태완 조합원

결혼 축하합니다

7월 07일 총무팀 김지형 조합원 둘째따님 결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월 10일 청정에너지 홍종엽 조합원 빙모상

노동조합 활동 일지

- 7월 04일 : 전직제도개선위원회 회의
- 7월 05일 : 임원진 원장단 면담
- 7월 06일 : 조세연구원 창립기념식 참가,
7대 집행부 1차 상집회의 개최
- 7월 08일 : 악질자본 이랜드 규탄 결의대회 참가
- 7월 09일 : 상반기 회계감사 진행
- 7월 12일 :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 참가
- 7월 13일 : 창립기념식 및 7대 임원 취임식 개최
- 7월 22일 : 악질자본 이랜드 규탄 결의대회 참가
- 7월 23일 : 전직제도개선위원회 회의
- 7월 26일 : 상집대의원 연석회의 개최,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참가
- 7월 27일 : 영화진흥위원회 사측 사무국장 해임
결의대회 참가, 이랜드 규탄집회 참가
- 7월 31일 : 편집위원회 회의, 이랜드 규탄집회
참가
- 8월 01일 : 교섭안 회의
- 8월 02일 : 성북구위원회 운영위

*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조합원이 되시면 KIST가 바뀝니다 *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복지와 권리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상해보험 가입,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 등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좋은 근무환경, 더 좋은 복지혜택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노동조합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활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 958-6351

인터넷 가입 : <http://kist.nodong.net/>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